

빅데이터로 본 전북 변화 추이는

웹소셜 분석 전북 ISSUE

1월 '농업편'
농촌진흥청 · 산업화

2월 '여행편'
전주 · 군산 · 한옥마을
힐링 · 당일치기
코레일 · 업무협약

전북도는 웹소셜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를 매월 보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해안을 활용해 전북도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가 뉴스블로그트위터에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 어떤 키워드가 도출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트렌드와 도민 반응을 체감할 수 있다.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에서 1월 '농업편'과 2월 '여행편'을 분석했다. '농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전북 농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 '산업화'가 눈에 띄는 키워드로 도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 9월 혁신도시 내 청사 이전 이후 전북의 농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업화'는 제6차 산업화(생산, 가공, 유통, 체험)를 말하며,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대응방안으로 전북도 역시 농업 활성화 및



전북도 확대간부회의 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및 출연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현안 사업과 관련해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농촌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제6차 산업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행'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전북 여행에 대해 분석했다. '여행' 키워드 데이터 수집출처에 따라 비슷한 키워드들이 도출됐으나, 블로그트위터의 경우가 전북도의 주요 관광명소와 그 지역이 다양하게 도출됐다. 2014년 상위에 랭크된 '전주', '군산', '한옥마을'은 지난 2월에도 전북의 대표 여행지로 자리매김 했음을 알 수 있다. 블로그와 트위터의 경우 '힐링' 키

워드와 함께 '당일치기' 키워드가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힐링' 키워드의 경우 각박한 현실에 잠시 벗어나고자 여행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당일치기' 키워드를 살펴보면 타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북에 잠시 들렀다 가거나, 교통의 발달(KTX, 고속버스 등)로 하루일정의 여행이 가능해졌음이 확인됐다. 뉴스의 경우 '코레일'과 '업무협약' 키워드가 눈에 띈다. '코레일' 키워드는 계절별 여행주년을 활용한 여행상품에 따라 검색추이

가 높았으며, '업무협약' 키워드는 지자체의 여행상품 홍보를 위해 민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국내의 여행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가 등장한지는 오래 됐으나 아직 직원들이 빅데이터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은 부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가 업무에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선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7일 전북 산업의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체 대표자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선도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는 자리로서 올해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을 안내하고, 2016년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했다. 올해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그동안 총 136개 기업이 선도기업에 선정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1개사, 글로벌 강소기업에 6개사 선정 등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전북 제조업의 중추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선도기업이 지역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전국단위의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 기업이 도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 4대 시책 추진

산림환경연구소는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359필지 9,596ha)에 대해 4대 시책을 추진한다. 연구소가 추진하는 4대 시책에는 대규모 밀원수림 조성 및 숲 가꾸기, 임도시설 확충으로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과 우리 풍토에 적응하는 가치 있는 수종 시험, 유아·청소년 등 수요자별로 차별화된 산림교육 제공, 자연휴양림 시설 및 숲길 조성, 정비 확대로 편의성 제공 등이다.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대규모 밀원수림 조성을 시작으로 도유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숲가꾸기와 외국유망수종 육성시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맞춤형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요 증가하는 데미셀 자연휴양림 시설을 보완하고 주변 숲길을 조성하는 등 전북도민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손쉽게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도, 뿌리산업육성 R&D지원사업 추진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뿌리산업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뿌리산업육성 R&D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육성 R&D지원 사업은 뿌리산업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첨단뿌리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기업주도형 과제를 신설한다. 기업주도형 과제의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 현재 도내 창업한 지 1년 이상된 기업 중 공상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md.jtp.or.kr>)를 통해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북IT(미래기획팀 063-219-2289)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도, 강원 원주지역 수학여행단 유치 마케팅

35개교 찾아가 수학여행 담당교사 면담 등 통해 전북 수학여행상품 소개

수학여행단 34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전북도가 강원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단 유치 세일즈에 본격 나선다. 전북도는 7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 원주지역 소재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학여행 최적지로 전북을 홍보하고 수학여행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최근에는 수학여행이 소규모 체험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도내의 소규모 체험형

수학여행상품 발굴, 맞춤형 수학여행 코스, 공정수학여행 등 강원, 경북지역을 타깃으로 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은 장거리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관광객 유치 및 개척에 어려움이 있으나 맞춤형 수학여행 코스, 체험형 코스 등 다양한 수학여행 테마를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 국내 및 국외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북도는 강원 원주지역 중·고등학교 35개교를 일일이 찾아가 수학여행 담당교사를 면담하고 도내 수학여행 코스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학여행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수학여행단이 도내에 도착하면 차량 1대당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해 전북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수학여행단의 손발이 돼주고 있어 전북을 찾은 수학여행단과 학습여행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정수학여행, 열차연계 코스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 전북도가 '수학여행 1번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야간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열차(KTX)와 연계해 열차를 타고온 수학여행단에게는 버스임차비를 지원하는 등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재용 기자

도,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실시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7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재난예방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정읍을 방문해 시가지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장을 방문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점검하고, 이어 산내면 구제역 매몰지를 찾아 사후관리 실태를 살펴보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